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08. 05.(월) 배포 2024. 08. 05.(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이석우)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역 임·농가의 자생식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땅채송화 증식·재배관리 안내서’를 개발 및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최근 지피조경식물로 땅채송화, 섬기린초 등 다육성 식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땅채송화의 증식과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담은 ‘땅채송화 증식·재배관리 안내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서는 땅채송화 파종, 발아, 이식, 육묘, 삽목, 포기나누기 등 재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그림과 함께 담고 있다.

‘땅채송화 증식·재배관리 안내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www.koagi.or.kr)에서 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양종철 산림생태복원실장은 “땅채송화는 지피조경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고 귀중한 자생식물”이라며 “이번 땅채송화 안내서가 농림업 종사자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돼 자생식물자원의 확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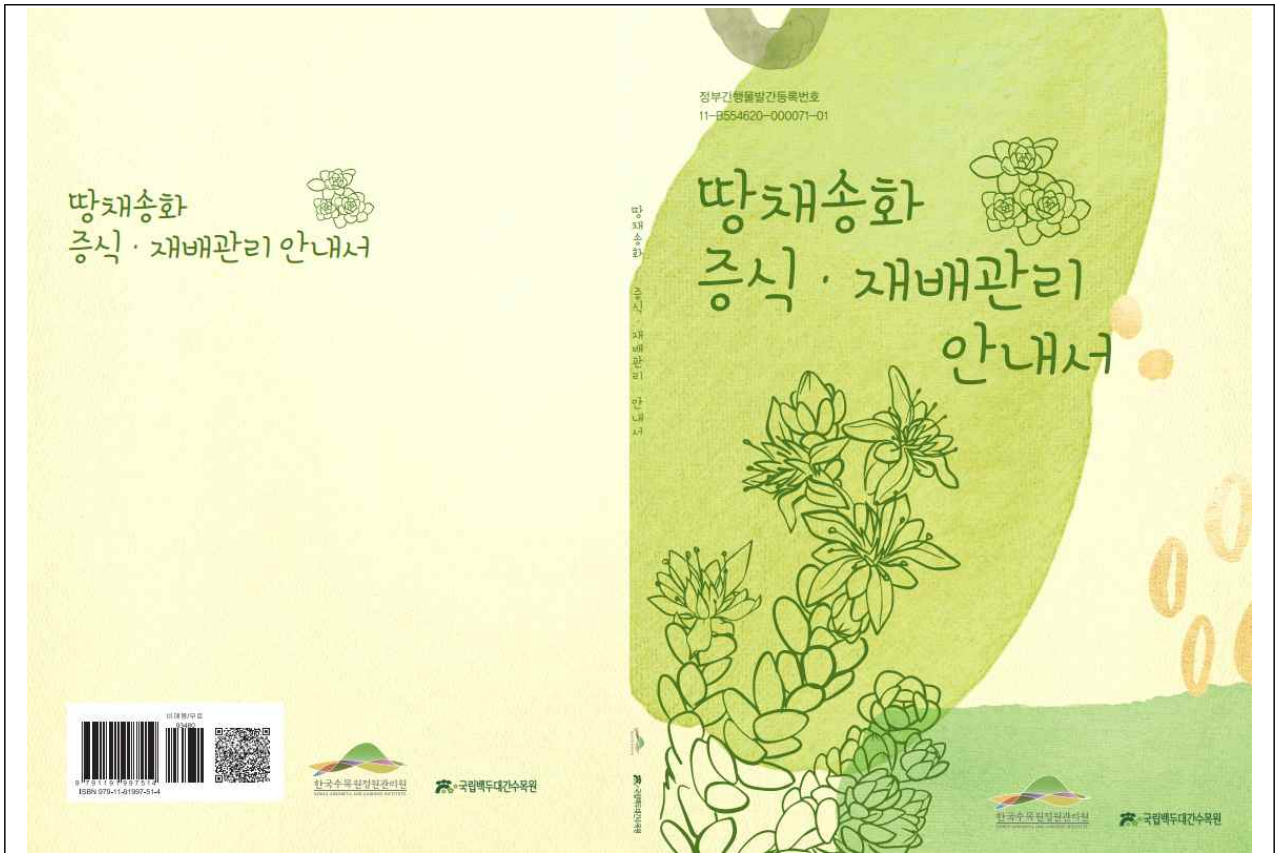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자생식물 이용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활용 가치가 높은 자생식물을 발굴하는 한편, 증식·재배관리 안내서 발간을 통해 자생식물 재배기술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오고 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양종철 (054-679-2771)
	산림생물자원본부 산림생태복원실	담당자	대 리	이동준 (054-679-069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 7월31일자로 발간한 땅채송화 증식·재배관리 안내서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돌틈정원에서 볼 수 있는 땅채송화



3. 토양을 덮으면서 자라는 자생지의 땅채송화